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 해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The title and status of The queen dowager in the middle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이현주 Lee, Hyun-ju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 (85), 2017.03, 415-445 (31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 (85), 2017.03, 415-445 (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4795
APA Style	이현주 (2017).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85), 415-44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4 10: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

이현주**

- I. 머리말
- II.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의 정립
 1. 왕모의 '왕후' 칭호의 의미
 2. '태후' 칭호와 위상 정립
- III. 만월태후의 칭호와 정치적 위상
- IV. 만월태후의 섭정과 왕모의 정치적 지향
- V. 맺음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왕모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중대 왕모의 칭호와 위상을 구현한 사례로서 중대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3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대표논문: 2015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21 ; 2015 「신라 중대 신목왕후(神穆王后)의 혼인과 위상」 『여성과 역사』 22 ; 2015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 2013 「신라 중고시기 왕실여성의 칭호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27.

의 마지막 왕모인 만월태후를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왕모의 칭호와 위상, 그에 따른 정치적 역할을 고찰하였다.

신라 중대의 왕모의 칭호는 시호로서의 ‘태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夫人과 王后였다. 이는 신라 중대에 왕후가 ‘正妃’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이에 따라 왕실여성의 위계 내에서 왕후가 가장 높은 지위를 점하게 된 결과이다. 이처럼 중대에는 당의 후비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신라 내부의 정치역학상의 필요에 따라 왕후의 지위가 제도화되었다. 이는 제도 외적인 존재인 태후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만월은 ‘夫人’, ‘王后’, ‘太后’의 칭호와 더불어 당으로부터의 책봉호인 ‘大妃’의 칭호를 칭하였다. 만월은 왕태자의 출산과 책봉으로 인해 비로소 왕후 책봉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이후 만월은 어린 혜공왕이 즉위함에 따라 왕의 어머니인 태후로서 섭정을 하였다. 만월이 섭정하는 동안 신라 내부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만월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당과의 외교를 통해 섭정으로서의 지위를 공인받으려 하였다. 그 일환으로 신라왕의 어머니로서 ‘大妃’의 책봉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신라 내부의 정치세력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주조가 완성된 것이 〈성덕대왕신종〉이었다. 이를 통해 만월은 왕위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섭정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만월은 혜공왕의 모로서 왕후로 공인받았고, 태후로 섭정을 하였다. 만월은 섭정기간 동안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했다. 이는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왕통의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만월은 왕모로서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는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신라 중대에 ‘왕후’의 위상이 정립되었고, 이는 왕모인 ‘태후’의 위상 및 역할과 연동되었다. 중대의 왕실여성은 대왕의 배필인 ‘왕후’로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었고, 왕의 어머니인 ‘태후’로서 왕실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제어 : 후비제, 태후, 대비, 왕후, 혜공왕, 만월태후

I. 머리말

신라 중대는 태종 무열왕부터 혜공왕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태종 무열

왕은 진골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첫 왕이었다. 중대의 왕실과 귀족은 모두 진골출신이라는 공통된 신분적 기반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왕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골 귀족을 억제하여 무열왕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였다.¹⁾ 이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제도적으로는 체계를 정비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귀족세력과의 연대와 견제를 통해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대의 왕실혼인은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중대 왕실여성의 칭호와 위상은 중대 왕권의 위상과 연동된 것이었다.

최근 중대 왕실여성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왕실과 진골 귀족세력 간의 역관계를 왕비를 배출한 정치세력, 이른바 외척세력에 주목하여 밝힌 연구가 있었다.²⁾ 다음으로 혼인과 출궁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진골귀족세력의 추이를 살펴본 연구도 이루어졌다.³⁾ 또한 중대의 마지막 태후이자 섭정을 했던 인물인 만월태후의 정치세력과 역할을 주목하였다.⁴⁾ 이들 연구에서는 중대 왕실과 정치세력의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중

1) 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p. 171.

2) 이영호, 2003 「신라 왕권과 귀족사회 -중대 국왕의 혼인 문제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2 ; 2011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신라사학보』 22 ; 박해현, 1997a 「惠恭王代 貴族勢力和 中代 王權」 『全南史學』 11 ; 1997b 「신라 경덕왕대의 외척세력」 『한국고대사연구』 11 ; 1993 「新羅 孝成王代 政治勢力的 推移 -孝成王의 卽位過程을 중심으로」 『歷史學研究』 12 ; 2003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재수록 ; 신정훈, 2001 「新羅 惠恭王代 政治的 推移와 天災地變의 性格」 『동서사학』 8 ;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재수록.

3) 조범환, 2010 「神穆太后 -신라 중대 孝昭王代의 정치적 동향과 신목태후의 섭정-」 『서강인문논총』 29 ; 2011a 「신라 중대 聖德王代의 정치적 동향과 왕비의 교체」 『신라사학보』 22 ; 2011b 「王妃의 교체를 통하여 본 孝成王代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연구』 154 ; 2014a 「《삼국유사》 왕력편의 異種記事를 통해 본 中代 新羅의 정치구조 -신라 중대 景德王의 왕비 교체와 정치적 동향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30.

4) 김수태,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신라사학보』 22 ; 조범환, 2014b 「신라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신라문화』 43.

대 왕권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고, 이에 그 점점에 위치한 왕실여성을 주목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는 중대 왕실여성의 존재 양상보다는 왕실과 귀족세력 간의 역관계, 정치세력의 추이를 고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혜공왕대는 중대 왕권의 성격 및 정치체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⁵⁾ 그리고 만월태후는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의 모후이다. 또한 혜공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였고, 당으로부터 처음으로 왕대비의 책봉을 받았다. 만월태후의 섭정을 차지하고 혜공왕대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단지 왕당파와 그에 반대하는 진골귀족세력 간의 역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혜공왕대 정치사에 대한 인식을 중대와 하대의 변혁기라는 점에만 주목할 경우 중대의 연속선상으로서의 하대의 특성에 대해서는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에 중대 왕모의 칭호를 고찰하여 위상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혜공왕대 만월태후 섭정기가 가진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대 왕실여성, 그중에서도 왕모의 칭호와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여 왕모의 위상을 구현한 사례로서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중대 왕모의 칭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대 왕모의 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만월태후의 ‘부인’, ‘왕후’, ‘태후’, ‘왕대비’의 칭호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따

5) 기왕의 연구에서는 중대 왕권의 성격을 전제왕권으로, 정치체제를 전제왕권체제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혜공왕대는 중대에서 하대로 이행하는 전환기로 이해되었다. 즉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혜공왕대가 중대 전제정치에서 하대 귀족연립정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파악하였던 것이다(이기백, 1958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 김수태, 1996 「신라중대정치사연구」, 일조각). 이후의 연구에서 ‘전제왕권’의 개념과 실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었다. 혜공왕대를 전환기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이영호, 1990 「신라 혜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 14 ; 1991 「신라 혜공왕 12년 관호복구의 의미」 『대구사학』 39 ; 2003 「신라 왕권과 귀족사회」 『신라문화』 22 ; 2014 「신라 중대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른 왕모로서의 위상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섭정기의 만월태후의 정치적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대 왕모의 위상과 정치적 지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대 왕모의 위상 변화 및 정치적 역할을 제도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중대왕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의 정립

1. 왕모의 ‘왕후’ 칭호의 의미

신라 중대의 왕은 모두 8명인데, 『삼국사기』 즉위조와 『삼국유사』 왕력편에 기록된 王母는 모두 6명이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효소왕과 성덕왕이 신문왕의 아들로, 同母弟이며, 효성왕과 경덕왕이 성덕왕의 아들로, 동모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의 왕모는 총 6명이다. 이들 사료에 기록된 왕모의 칭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삼국사기』 즉위조의 왕모와 관련된 기록이다.

A-1) 태종무열왕이 즉위하였다. 諱는 春秋이고, 진지왕의 아들 龍樹의 아들이다. 母는 天明夫人이고, 眞平王의 딸이다. 妃는 文明夫人이고, 舒玄角滄의 딸이다(『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武烈王 즉위조).

A-2) 文武王이 즉위하였다. 諱는 法敏이고, 太宗武烈王의 元子이다. 어머니는 김씨 文明王后로, 蘇判舒玄의 季女이고, 庾信의 누이이다(『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즉위조).

A-3) 神文王이 즉위하였다. 諱는 政明(明의 字는 日曄)이고, 文武王의 長子이다. 母는 慈儀(혹은 義)王后이다. 妃인 金氏는 蘇判 흠돌의 딸이다. 왕이 太子로 있을 때 그를 맞이하였는데, 오래도록 이들이 없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의 반란에 연루되어 出宮되었다(『三國史記』 권8 新羅本

紀8 神文王 즉위조).

A-4) 孝昭왕이 즉위하였다. 諱는 理洪(혹은 恭)이고, 神文王의 太子이다. 母의 姓은 金氏로, 神穆王后인데, 一吉滄 金欽運(혹은 雲)의 딸이다(『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즉위조).

A-5) 聖德왕이 즉위하였다. 諱는 興光이다. (중략) 신문왕의 第二子이고, 효소왕의 同母弟이다(『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즉위조).

A-6) 孝成왕이 즉위하였다. 諱는 承慶이고, 聖德王의 第二子이고, 母는 炤德王后이다(『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孝成王 즉위조).

A-7) 景德왕이 즉위하였다. 諱는 憲英이고, 孝成王의 同母弟이다. 孝成王에게 아들이 없어 현영을 세워 太子로 삼았던 까닭에 왕위를 이을 수 있었다. 妃는 伊滄 順貞의 딸이다(『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즉위조).

A-8) 惠恭왕이 즉위하였다. 諱는 乾運이고, 景德王의 嫡子이다. 母는 金氏이고, 滿月夫人으로 舒弗邯 義忠의 딸이다.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여덟 살이었으므로 太后가 섭정하였다(『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惠恭王 즉위조).

『삼국사기』 즉위조에 보이는 왕모의 칭호는 夫人과 王后이다. 부인의 경우, A-1)의 무열왕의 母인 천명부인, A-8)의 혜공왕의 母인 만월부인이다. 왕후의 경우, A-2)의 문무왕의 母인 문명왕후, A-3)의 신문왕의 母인 자의왕후, A-4)의 효소왕의 母인 신목왕후, A-6)의 효성왕의 母인 소덕왕후이다. A-5)의 성덕왕과 7)의 경덕왕은 동모제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왕모 칭호 역시 ‘왕후’로 볼 수 있다. A-1)과 8)을 제외하고는 왕모의 칭호가 왕후인 것이다. A사료에 따르면 무열왕 이후 왕모의 칭호는 ‘왕후’이고, A-8)의 만월부인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태후’의 칭호가 보인다. 다음은 『삼국유사』 왕력편에 보이는 왕모의 칭호이다.

- B-1) 제29대 태종무열왕. 이름은 春秋이고, 김씨이다. (중략) 母는 天明夫人으로 諡는 文貞太后로 진평왕의 딸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二十九 太宗武烈王).
- B-2) 제30대 문무왕. 이름은 法敏이고 태종의 아들이다. 母는 訓帝夫人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 文武王).
- B-3) 제31대 신문왕. 김씨이며 政明이고 자는 日炤이다. 父는 文무왕이고 母는 慈訥王后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一 神文王).
- B-4) 제32대 효소왕. 이름은 悝恭(또는 洪)이며 김씨이다. 父는 신문왕이고, 母는 神穆王后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二 孝昭王).
- B-5) 제33대 성덕왕. 본명은 隆基이고, 효소왕의 母弟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三 聖德王).
- B-6) 제34대 효성왕. 김씨이며 이름은 承慶이다. 父는 成덕왕이고, 母는 炤德太后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四 孝成王).
- B-7) 제35대 경덕왕. 김씨이며, 이름은 憲英이다. 父는 成덕왕이고, 母는 炤德太后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五 景德王).
- B-8) 제36대 혜공왕. 김씨이며 이름은 乾運이다. 父는 景덕왕이고, 母는 滿月王后이다(『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六 惠恭王).

『삼국유사』 왕력편에 보이는 왕모의 칭호는 夫人과 王后, 太后이다. 가장 많이 쓰인 칭호는 ‘왕후’이다. 왕후는 B-3)의 신문왕, B-4)의 효소왕, B-8)의 혜공왕의 모를 각각 ‘왕후’로 기록하였다.

夫人의 경우, B-1)의 무열왕의 母인 天明夫人, B-2)의 문무왕의 母는 訓帝夫人의 사례가 보인다. 天明夫人은 무열왕이 즉위 원년에 ‘文貞太后’로 추봉하였다.⁶⁾ 따라서 A-1)과 B-1)의 天明夫人은 王母가 아닌 진골귀족인 金龍

6)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태종 무열왕 원년.

춘의 妻로서의 칭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B-2)의 무열왕의 妻이자 문무왕의 母인 訓帝夫人 역시 무열왕이 즉위하기 이전인 金春秋의 妻로서 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증왕의 ‘迎帝夫人’의 개칭사례로 보아, 혼제부인의 ‘訓帝’는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이후에 개칭된 칭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三國遺事』 王曆篇에서 武烈王의 妃는 訓帝夫人으로 諡號가 文明王后라 하였다.⁷⁾ 이로 보아 문명왕후는 시호이고, 생전의 칭호는 訓帝夫人이었을 것이다. 즉 무열왕의 모인 천명부인과 처인 혼제부인은 생전에 진골귀족의 배우자로서 ‘夫人’이었고, 사후에 각각 ‘태후’와 ‘왕후’의 시호로 추봉되었다. 그리고 ‘태후’와 ‘왕후’는 무열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무열왕의 어머니와 배우자로서 추봉된 시호인 것이다.

태후의 경우, 중대에는 사후에 추봉된 시호인 文貞太后가 첫 사례이다. B-6)와 7)의 소덕태후 역시 추봉된 시호이다.⁸⁾ 소덕태후의 생전의 칭호는 점물왕후였다. 소덕태후는 성덕왕 23년(724)에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⁹⁾ ‘태후’는 아들인 효성왕과 경덕왕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추봉된 칭호일 것이다. 이로 볼 때 왕실여성의 시호는 〈名+王后〉 또는 〈名+太后〉의 형식으로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왕후’ 또는 ‘태후’의 칭호는 물론 名까지 개칭되었는데, 이처럼 시호가 〈名+칭호〉의 형식으로 부여되는 것은 중국식의 용법이다. 중국식의 시호법이 왕실여성에게까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¹⁰⁾

‘태후’의 칭호는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에서도 보인다.¹¹⁾ 〈황복사사리

7) 『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二十九 太宗武烈王.

8) 『三國遺事』 권1 王曆1 第三十三 聖德王.

9)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成德王 23년.

10) 시호제 역시 지증왕 사후 처음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유학적인 의미의 시호제는 무열왕 이후 비로소 제도화되었다(김영하, 2007 앞의 책, 일지사, p.209). 무열왕대에 왕의 부모에 대한 추봉, 왕의 사후 시호 제정과 묘호 추존 등을 행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의 변화가 왕실여성에게도 해당되었던 것이다.

11)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이하 〈황복사사리함기〉.

함기)의 神睦太后는 신문왕의 처이자 효소왕과 성덕왕의 모로, A-4)와 B-4)에서는 神穆王后라 하였다. 여기서 神穆王后와 神睦太后는 비록 한자어가 穆이 睦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 것이다. <황복사사리함기>에서의 ‘태후’와 ‘왕후’ 역시 성덕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배우자로서 부여된 칭호이다. 銘文의 작성시점이 聖德王 5년(706)이었던 것으로 보아, 太后는 사후에 추증된 칭호였을 것이다. 또한 <황복사사리함기> 내에서 太后와 王后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덕왕의 妻인 王后와 구분하기 위해 王母로서 太后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중대 초기 왕모로서의 ‘태후’의 위상은 인식되었으나, 왕모임에도 불구하고 ‘태후’보다 ‘왕후’의 칭호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대의 왕모의 칭호는 ‘태후’보다 ‘왕후’의 칭호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왕후’는 황제의 배우자인 ‘皇后’를 일컫는 칭호였다. 당의 后妃制에서 황후는 황제와 병립한 존재로서 궁궐 내에서 內朝를 관장하였다.¹²⁾ 반면 황태후는 예제적 측면에서 황제의 일원적 지배질서체제에서 독립하여 존재하였다. 중국의 후비제에서 ‘황후’를 최상위로 하여 內職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황태후는 후비제 내에 위치한 존재가 아니었다. 또한 황태후의 존재는 황제의 지배체제 안에 포섭된 존재도 아니었다. 즉 ‘황제-황후’를 중심으로 한 궁정조직에서 황태후는 제도 외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황태후가 실질적인 정치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황제의 통제력이 미약한 비상시의 경우에 한정되었다. 즉 새로운 황제의 지위가 미정이거나, 새 황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황태후가 황제권을 합법적으로 대행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황태후의 권한 대행은 새 황제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황제의 嫡妻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¹³⁾

12) 『通典』 권34, 職官16.

13) 金慶浩, 1995 「漢代 皇太后權의 性格에 대한 再論」 『阜村 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p.50, pp.56~57.

신라 중대에 중국의 후비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왕후의 칭호가 수용되었다. 중대 왕실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왕비세력은 왕비를 매개로 하여 기반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왕실의 필요와 귀족세력의 이해가 맞물려 중대 왕후의 칭호와 위상이 정립되어갔던 것이다.¹⁴⁾ 신라 중대의 ‘왕후’는 대왕-왕후체계에서 대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배필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중대의 왕모의 칭호는 시호로서의 ‘태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夫人과 王后였던 것으로 보아 왕실여성의 위계에서 왕후의 지위가 가장 높았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중대에는 당의 후비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신라 내부의 정치역학상의 필요에 따라 왕후의 지위가 제도화되었다. 이는 제도 외적인 존재인 태후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2. ‘태후’ 칭호의 위상 정립

중대의 첫 왕인 무열왕대부터 왕의 어머니는 태후, 왕의 배우자는 왕후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실제로는 왕의 어머니의 칭호로 ‘태후’보다 ‘왕후’로 기록된 사례가 빈번하다. 중대에서 왕후의 칭호와 위상은 왕권의 강화를 위한 수단의 일환이었다. 왕후의 위상 강화는 왕실여성 내부의 위계질서와도 연계되었다. 왕후의 위상은 곧 태후의 위상과 연동되었던 것이다. 중대에 현왕의 어머니인 ‘태후’보다 전왕의 배필인 ‘왕후’의 칭호가 빈번하게 쓰인 것으로 보아 태후보다 왕후의 위상이 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후’가 실질적인 칭호로 사용되는 사례가 경덕왕대에 보인다. 또한 혜공왕대에 만월 역시 ‘태후’로서 섭정을 하였다. 이는 ‘태후’의 위상이 변화되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14) 이현주, 2015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pp. 250~259.

- C-1) 景德王 7년(748), 가을 8월에 태후가 永明新宮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7年).
- C-2) ㉠우러러 생각하건대 태후께서는(仰惟太后) ㉡ 은혜로움이 땅처럼 평
 평하여 백성들을 어진 교화로 교화하셨고, 마음은 하늘처럼 맑아서
 부자(父子)의 효성을 장려하셨다. ㉢ 이는 아침에는 元舅(원구)의 어
 째과 저녁에는 忠臣(충신)의 보필을 받아 말을 가리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행동에 허물이 있으리오. ㉣ 이에 유언을 돌아보고 드디어 옛 뜻
 을 이루고자 하였다. 유사에서 이를 준비하고 기술자들은 밑그림을
 그렸다. ㉤ 때는 신해년(771) 12월이었다.
- C-3) ㉠ 그 詞에 이르되 (생략) 위대하도다. 우리 태후시여(偉哉我后) 왕성
 한 덕이 가법지 아니하도다. 보배로운 상서가 자주 출현하고 영험스
 런 부응이 매양 생겨났다. 임금이 어질때 하늘이 돕고 시절은 태평하
 고 나라는 평안하였다. 조상을 생각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서원을 이루었다. 이에 유명을 돌아보고 이에 종을 베풀었다(이상
 聖德大王神鍾銘).¹⁵⁾

C 사료는 태후가 실질적으로 칭호로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로 그 시기와 대상이 주목된다. 우선 C-1)은 경덕왕 7년(748)의 기사로, 태후가 영명신궁으로 옮겨 거처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 사료에서 太后가 누구를 지칭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덕왕의 父인 성덕왕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다. 그중 첫 왕비인 성정왕후는 출궁되었고, 효성왕의 친모인 소덕왕비는 죽었다. 일반적으로 경덕왕의 태후는 친모인 소덕태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소덕태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소덕왕비는

15) 南東信, 1992 <聖德大王神鍾銘>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383~393.

경덕왕이 즉위 이전에 이미 죽었고, 太后는 사후에 추증된 시호였다. 경덕왕의 부왕인 성덕왕의 비 중 태후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경덕왕대에 태후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전왕인 효성왕의妃일 가능성이 크다.¹⁶⁾ 효성왕비인 혜명왕후는 왕의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후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선왕의 正妃로서의 위상이 현왕대에 태후의 위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⁷⁾

다음으로 C-2)와 3)은 <성덕대왕신종>의 銘文으로, 혜공왕 7년의 기사이다.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에 ‘太后’와 ‘后’의 칭호가 보인다. C-3) ㉠ ‘偉哉我后’로 되어 있는데, 이는 詞의 형식에 맞게 글자수를 네 글자로 맞추기 위해 太后의 ‘太’字를 생략하였던 듯하다. ‘我后’가 ‘우리 太后’로 해석되었다.¹⁸⁾ 또한 后의 경우, 종의 銘文 말미에 詞로 덧붙여진 부분이다. 詞의 내용이 앞선 <성덕대왕신종>에서의 주요인물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라는 점을 염두하여 볼 때, 詞의 后는 銘文 상의 太后와 동일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덕대왕신종> 명문에서의 ‘太后’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태후가 <성덕대왕신종>의 주조를 처음 계획한 경덕왕의 모후, 즉 성덕왕의妃인 소덕태후인 것으로 보았다.¹⁹⁾ 이후에 주조를 완성한 시점, 즉 혜공왕대를 기점으로 그의 모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혜공왕의 모후인 만월태후로 보았다.²⁰⁾ <성덕대왕신종>에서는 태

16) 이영호, 2003 앞의 논문, p.36 각주 136.

17) 이현주, 2015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pp.259~261.

1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p.391.

19) 南東信, 1992 앞의 책, p.386.

20) 이호영, 1974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 1997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재수록, pp.433~436 ; 이문기, 1999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p.823.

후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맥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할 수밖에 없다. C-2)의 내용을 보면, ①에서 태후의 덕을 칭송하기를 백성을 교화하고, 부자의 효성을 장려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②에서 원구와 충신의 보필을 받아 행동에 허물이 없다고 하였고, 그렇기에 ③에서 유언을 돌아보아 옛 뜻을 따르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④ 신해년, 혜공왕 7년 이었던 것이다. 종의 명문에서 ‘今我聖君’이라 하여²¹⁾ 작성 시기의 왕인 惠恭王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 <성덕대왕신종>에서의 太后는 만월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C-2)의 ‘태후’는 종이 완성될 당시인 신해년(771) 12월에 섭정을 하였던 만월태후인 것이다.

이처럼 C 사료의 ‘태후’는 시호가 아닌 실질적인 칭호로 사용되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C-1)의 태후는 경덕왕의 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왕인 효성왕의 비라는 이유로 태후의 지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효성왕과 경덕왕이 혈연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왕의妃가 태후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즉 효성왕의 正妃였던 혜명이 경덕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전왕의 정비로서 태후의 칭호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왕의 어머니라는 혈연적인 이유 이전에 전왕의 정비라는 위상이 ‘태후’의 위상과 연계되었던 것이다. 또한 C-2)의 태후는 ①에서 백성의 교화와 ②에서의 원구와 충신의 보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정치적 행위의 주체이자 <성덕대왕신종>의 주조를 완성한 장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C-2)와 3)으로 보아 만월은 왕의 어머니라는 위상을 강조함으로써 섭정의 명분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월은 <성덕대왕신종>을 완성하여 왕의 어머니, 즉 ‘태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섭정이라는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경덕왕대의 태후는 왕의 친모가 아니었고, 혜공왕대의 태후는 섭

2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앞의 책, p.385.

정이라는 비상시적 정치적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다. 전자의 경우, 혼인과 책봉의례를 통해 공식화된 '正妃'의 위상이 후대 왕대의 '태후' 지위로 연계된 것이다. 경덕왕과 효성왕비인 혜명과의 혈연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현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했을 것이다. 전왕의 정비로서 현왕의 '태후'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후자의 경우, 섭정이라는 비상시적 상황이 전왕의 배필인 '왕후' 보다 현왕의 어머니인 '태후'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해야만 상황을 야기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대의 '대왕-왕후' 체계에서 왕의 배우자로서 왕후의 지위는 공식적인 것이지만, 왕의 어머니인 태후의 지위는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왕권이 강했을 때에는 공식적인 지위인 왕후의 위상이 높아졌고, 왕권이 약할 경우, 왕의 지배체제를 초월한 지위인 태후의 위상과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강해졌던 것이다.²²⁾ 만월태후는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는 비상시적 상황에 의해 태후로서 섭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신라는 당의 후비제의 정비 개념을 통해 신라에서의 정비와 태후의 지위를 정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왕실과 귀족세력 간의 접점에 위치한 왕실여성의 위상 정립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III. 만월태후의 칭호와 정치적 위상

만월태후의 칭호와 정치적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8)에서 夫人과 太后의 칭호가 나오고, 『삼국유사』에서 夫人과 王后 및 太后의 칭호가 보인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22) 이현주, 2015 「신라 중대 신목왕후(神穆王后)의 혼인과 위상」 『여성과 역사』 22, pp. 22~23.

D-1) 경덕왕 2년(743), 4월에 서불한 金義忠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경덕왕 2년).

D-2) 제삼십오대 景德王, 金氏이고, 이름은 憲英이다. 아버지는 聖德王이고, 어머니는 炤德王后이다. 先妃는 三毛夫人으로 宮中에서 廢黜 後嗣가 없다. 後妃는 滿月夫人으로 諡號는 景垂王后이고, 垂를 穆이라고도 하며 依忠角干의 딸이다.

D-3) 왕은 옥경이 길이가 8촌이나 되었다. 사랑부인이 아들이 없어 그를 폐하고, 후비 만월부인을 봉하였는데 시호는 경수태후로 의총 각간의 딸이다(이상 『三國遺事』 권2 紀異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A-8)과 D-1)은 『삼국사기』 즉위조이고, B-8)과 D-2)는 『삼국유사』 왕력편이다. D-1)과 2)는 경덕왕의 배우자로서의 만월부인에 대한 기록이고, A-8)과 B-8)은 혜공왕의 모후로서의 만월부인에 대한 기록이다. 이들 기록에서 만월이 ‘부인’으로 지칭된 것은 D-2), D-3)에서는 만월부인, 왕후로 지칭된 것은 B-8)에서 만월왕후, D-2)에서 시호로서의 景垂 혹은 景穆王后, 태후로 지칭된 것은 A-8)에서 보인다. 『삼국사기』 즉위조와 『삼국유사』 왕력편은 기록의 특성상 연대기적 서술이 아닌 왕과 관련된 주요 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 기록에서 보이는 만월의 칭호가 ‘부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D-1)은 경덕왕과 만월의 혼인 기사이다. 경덕왕이 서불한 김의충의 딸과 혼인하여 왕비로 삼았다는 것이다. 중대에는 왕실의 혼인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기록에서 왕비로 맞이하였다는 문구가 ‘納A爲妃’, 즉 A를 맞이하여 妃로 삼았다고 표현되었다. ‘왕비’는 고유명사이기보다는 ‘왕의 妃’ 즉 왕의 처를 일컫는 일반명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妃는 고유칭호로서의 ‘왕비’가 아닌 왕의 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D-1)에서는 ‘納舒弗邯金義忠女爲王妃’라고 하여 서불한 김의충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고 기록하였다. 성덕왕 19년(729)의 혼인 기사에서 3월에 이찬 순원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고, 6월에 왕비를 책봉하여 왕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²³⁾ 이들 기록으로 볼 때, 성덕왕 이후 ‘왕의 처’의 공식적인 칭호로 ‘왕후’와 함께 ‘왕비’도 칭해졌음을 알 수 있다.²⁴⁾ 즉 왕의 배우자는 혼인이 아닌 책봉을 통해 ‘왕후’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 즉위조와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만월의 칭호가 ‘부인’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만월은 혼인 이후에 ‘왕후’ 책봉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D-2)와 3)의 기록과 같이 만월태후가 혼인하기 전에 경덕왕에게는 이미 왕비가 있었다. 『삼국유사』에서 先妃인 三毛夫人이 宮中에서 廢黜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삼모부인이 출궁된 이유에 대해 경덕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견해와²⁵⁾ 귀족세력 간의 알력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²⁶⁾ 또한 경덕왕과 삼모부인 간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²⁷⁾ 폐출과 無子라는 두 사실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폐

23)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성덕왕 19년.

24) 이현주, 2015 앞의 논문, pp.252~259.

25) 이영호는 삼모부인이 무자였던 점이 출궁의 주요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았다(2003 앞의 논문, p.35). 김수태는 삼모부인이 무자였다는 점과 아울러 삼모부인 세력에 대한 경덕왕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김수태, 1996 앞의 책, p.114 각주 46). 조범환은 경덕왕이 왕권의 약화를 불러올 외척세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삼모부인을 폐출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인 것으로 보았다(2014 앞의 논문, pp.137~138).

26) 전덕재는 경덕왕이 즉위한 후에 김사인을 중심으로 한 귀족세력에 의해 김순정-삼모부인계가 밀려난 것으로 이해하였다(1997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聖德王-惠恭王代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37, pp.32~33). 신정훈은 경덕왕이 즉위한 직후에 왕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김순원계와 정종 및 사인 등이 주도하여 삼모부인을 출궁한 것으로 보았다(앞의 책 2010, pp.46~47).

27) 김선주, 2011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 44, pp.12~14.

출 이후에 무자라는 기록이 있어, 폐출과 무자를 사실의 나열로 보거나 또는 폐출되었기에 무자였던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모부인의 폐출 시점은 만월이 後妃로 들어온 해인 경덕왕 2년(743) 이전이므로, 경덕왕의 즉위 초기였다. 만월이 왕자를 출산한 시기는 혼인하고도 15년 후인 경덕왕 17년(758)이었다. 이로 볼 때 삼모부인의 출궁을 단순히 無子의 이유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세력 간의 알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만월이 경덕왕 2년에 혼인한 이후에 ‘왕후’ 책봉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부인’이었던 것은 정치세력 간의 알력과 혼인 후에 한동안 ‘無子’였다는 점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만월이 ‘왕후’ 또는 ‘태후’로 칭해졌던 것은 혜공왕이 즉위한 이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월의 ‘태후’ 칭호는 A-8)의 섭정과 관련하여 나오고 있다. 혜공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기에 태후로서 섭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만월의 ‘태후’로서의 위상은 혜공왕대 섭정과 관련하여 부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대의 ‘대왕-왕후’ 체계에서 만월 ‘부인’의 위상, 그리고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는 비상시의 상황에서 ‘태후’의 칭호와 위상이 부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월태후가 섭정하는 동안 신라 내에서는 반란이 지속되었다. 혜공왕 4년(768) 7월에 大恭과 그 아우인 大廉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왕의 군사가 이를 쳐서 평정하였다고 하였다.²⁸⁾ 혜공왕 6년(770) 가을 8월에 대아찬 金融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다.²⁹⁾ 혜공왕 8년, 9년, 10년, 11년에 연이어 당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는데, 이는 신라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만월태후의 외교적 전략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⁰⁾ 이처럼 신라 내부에서 만월태후의 섭정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었고, 이를 대처하

28)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혜공왕 4년.

29)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혜공왕 6년.

30) 金壽泰, 1996 앞의 책, p.126~127.

기 위한 만월태후의 노력이 이어졌다.

우선 만월태후는 대외적으로 섭정으로서의 지위를 당과의 외교를 통해 공인받고자 하였다. 다음은 만월태후가 당으로부터 大妃로 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이다.

혜공왕 4년(768), 당나라 代宗이 倉部郎中 歸崇敬에게 御史中丞을 겸직시켜 보내 부절과 책봉조서를 가지고와 왕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으로 책봉하고 아울러 왕의 어머니 김씨를 大妃로 책봉하였다(『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혜공왕 4년).

혜공왕 4년에 혜공왕과 만월태후는 당으로부터 각각 개부의동삼사 신라왕과 대비로 책봉을 받았다. 중국적 용법에 의하면, 왕의 처는 妃, 文武官 및 國公의 妻는 國夫人이라 칭하고, 母에게는 ‘太’를 더한다고 하였다.³¹⁾ 따라서 신라왕의 처는 新羅王妃이고, 신라왕의 모는 新羅王太妃로 칭해져야 한다. 『全唐文』에 실려 있는 책봉문서에 따르면, 大妃의 정식 칭호는 新羅王太妃였음을 알 수 있다.³²⁾

신라의 왕모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례는 만월태후의 경우가 처음이다. 당으로부터 신라왕과 신라왕태비의 책봉을 받아서 신라로 돌아온 이가 金隱居이다. 『구당서』와 『책부원귀』에 의하면, 신라에서 당에 김은거를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冊命을 청하였다고 하였다.³³⁾ 신라가 당의 책봉을 요청한 것이다.³⁴⁾ 『新唐書』에 의하면, 당의 新羅王과 王太妃 책봉 기사에 연이어 이

31) 『唐會要』 卷4, 封建雜錄下.

32) 『全唐文』 卷49 代宗皇帝, 〈冊新羅王太妃文〉.

33) 『舊唐書』, 東夷列傳, 新羅; 『冊府元龜』 권972, 外臣部17, 朝貢5.

34) 井上秀雄은 혜공왕이 어려서 즉위하였기에 신라 왕실의 권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쪽이 보다 당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株式會社, p.355). 그러나 당시 만월부인이 섭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렵 宰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서로 공격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웠다고 하였다. 3년 만에 비로소 안정되었고, 이 해에 來朝하여 貢物을 바쳤던 것이다.³⁵⁾ 이로 볼 때 만월태후가 어린 혜공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라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에서는 혜공왕 초기의 권력다툼이 안정되었기에 비로소 당에 입조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책명을 요청하는 김은거에 의해 전해진 신라의 사정이었다.

만월태후는 그의 섭정에 대해 당의 大妃 책봉을 받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만월태후가 섭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였고, 당으로부터의 대비 책봉은 그의 통치행위에 대한 명분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만월태후는 대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한 타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혜공왕대에 주조가 완성된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이 주목된다.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구리 12만 근을 희사하여 1장이나 되는 종 1구를 만들고자 계획한 것이었다. 경덕왕이 종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고, 그 유지를 받들어 혜공왕대인 신해년(771) 12월에 종의 주조를 완성하였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에서는 태후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보아 성덕대왕신종의 주조의 완성은 왕위의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명분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만월태후의 섭정체제를 지지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³⁶⁾

이처럼 만월태후는 왕모임에도 불구하고 섭정으로서의 지위와 명분을 당의 大妃 책봉을 통해 공인받았다. 만월태후는 신라의 정치적 여건에 의해 당

섭정자인 만월부인의 지위 확보라는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35) 『新唐書』, 東夷列傳, 新羅.

36) 이문기, 1999 앞의 논문, p.823.

의 책봉호인 ‘대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통해 섭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월태후는 섭정기간 동안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했다. 그러기 위해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왕통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만월태후는 왕모로서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는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IV. 만월태후의 섭정과 왕모의 정치적 지향

만월태후의 칭호와 그에 따른 정치적 위상은 중대 왕모의 칭호 및 정치적 위상에 기반한 것이었다. 만월태후의 칭호 및 정치적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대 왕모의 정치적 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혜공왕 11년에 연이어 반란이 일어났다. 김은거가 혜공왕 11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다. 김은거는 혜공왕 4년에 당으로부터 신라왕과 신라왕대비의 책명을 받아 온 사신이었다. 또한 같은 해 가을 8월 이찬廉相이 시중 正門과 반역을 꾀하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다. 정문은 혜공왕 4년에 김은거가 시중직을 물러난 후, 시중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염상은 경덕왕 19년(760)에 시중에서 물러나고, 이어 김용이 시중으로 임명되었다. 김은거, 염상, 정문이 연이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유사하리라 여겨진다.³⁷⁾ 이들 김은거, 염상, 정문은 만월태후의 섭정기의 정국을 운영하던 세력이었던 것이다.

김은거를 비롯한 세력이 일으킨 이 시기의 정변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

37) 이기백은 정문이 은거, 염상이 동일한 파로써 은거의 뒤를 이었다가 良相 등 일파의 대두로 말미암아 퇴직을 강요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양상과 정문의 모반 역시 2개월 전의 김은거의 반란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하였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기백, 1974 앞의 책, p.236).

과 같이 이해하였다. 하나는 중대의 전제왕권의 지지자와 반대자, 즉 친왕과 반왕파간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였다.³⁸⁾ 다른 하나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해공왕의 친정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아 만월태후 섭정기의 기득권층과 해공왕 친정기의 지지층 간의 갈등으로 파악하였다.³⁹⁾ 해공왕 11년의 정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공왕의 친정과 해공왕과 만월태후와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섭정기의 만월태후의 정책과 11년 이후의 정책 사이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공왕 12년에 있었던 다음의 두 가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관호 복구이고, 다른 하나는 오묘제 개혁이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E-1) 해공왕 12년(776), 봄 정월, 敎를 내려 百官의 號를 모두 합하여 復舊 하라고 하였다(『三國史記』 권9 신라본기9 해공왕 12년).

E-2) 제36대 해공왕에 이르러 처음으로 五廟를 정하였다. 미추왕이 김성의 시조로 삼고, 태종대왕, 문무대왕은 백제 고구려를 평정한 큰 공덕이 있다고 하여 모두 대대로 헐지 않는 宗으로 삼았으며 거기에다가 親廟 둘을 아울러 五廟로 하였다(『三國史記』 권32 雜志1 祭祀).

38) 이기백은 해공왕 10년 9월에 김양상이 상대등에 취임하였는데, 이는 김양상이 반왕 파임과 동시에 하대적인 성격의 신정권이 들어선 것이라고 하였다.(1974 앞의 책, p.236). 김수태는 김양상과 더불어 김용도 반왕적 인물이고, 김용이 집사부 시중에 취임한 경덕왕 19년이 중대왕권이 부정되고 반전제주의적(하대적) 세력이 등장한 정권교체기였다고 보았다(김수태, 1997 앞의 책, p.115) 이에 반해 이영호는 김용과 김양상은 친왕과 인물이며,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중대 왕실의 최후 보루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14 앞의 책, pp.167~169).

39) 해공왕의 친정의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해공왕 11년에 친정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와(이문기, 1999 앞의 논문; 채미하, 2000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韓國史研究』 108;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재수록) 성덕대왕신종이 완성된 시점인 해공왕 7년에 친정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수태, 2011 앞의 논문, p.158; 조범환, 2014b 앞의 논문, p.237 각주30).

E-1)과 2)사료는 각각 혜공왕대 관호 복구 및 오묘제와 관련된 사료이다. E-1)의 관호 복구는 경덕왕 18년(759)에 이루어진 관직명을 한화식으로 변경하였던 것을 다시 옛 명칭으로 복구한 것을 일컫는다. 이를 근거로 『삼국사기』 직관지의 혜공왕대 관직 복구 역시 혜공왕 12년(776)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았다.⁴⁰⁾ 경덕왕대의 관호 개혁은 16년(757) 12월의 지명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덕왕대 이루어진 지명 및 관호의 한화정책은 중대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대왕실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이었다.⁴¹⁾ 경덕왕 16년에 각 州과 小京, 郡, 縣의 명칭과 경덕왕 18년에 관직의 명칭을 전면적으로 唐式으로 개칭한 것은 경덕왕대의 지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중대왕권은 무열왕이 즉위한 이래로 당제를 수용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유학을 수용하여 지배윤리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성덕왕대에 당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당제와 유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덕왕대에 제도상의 명칭을 전면적으로 개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중대왕권은 수평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제도의 일원화, 수직적으로는 관직제도의 체계화를 이루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월태후는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계승되는 중대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E-1)의 혜공왕의 관호 복구는 경덕왕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만월태후가 가진 입장과 배치되는 정책이었다. 기왕의 연구에서 관호복구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 친정을 하게 된 혜공왕이거나⁴²⁾ 또는 중대왕실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김양상을 비롯한 반왕파였을 것으로 보았다.⁴³⁾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호복구는 크게

40) 이영호는 혜공왕 12년에 官號는 물론 地名 역시 모두 復古되었다고 하였다(1989 「신라 혜공왕 12년 관호복고의 의미」 『대구사학』 39 ; 2014 앞의 책 재수록, pp.129~130).

41) 이기백, 1974 앞의 책, pp.245~247.

42) 이문기, 1999 앞의 논문, pp.824~827 ; 조범환, 2014 앞의 논문, p.241.

는 중대왕실의 부정이었고,⁴⁴⁾ 작계는 경덕왕대의 정책에 대한 부정이었다.⁴⁵⁾ 이로 볼 때 혜공왕 12년의 관호복구가 만월태후의 정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혜공왕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관호복구를 주도한 세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E-2)의 혜공왕대 오묘제 개혁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혜공왕이 18세가 되던 해인 11년에 친정을 시작하고,⁴⁶⁾ 이듬해인 12년에 오묘제를 개혁하였다.⁴⁷⁾ 혜공왕대 개혁된 오묘제의 내용을 보면, 오묘의 首位를 차지하는 廟號가 태조대왕에서 시조대왕으로 변경되었고, 대대로 혈지 않는 宗으로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묘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혜공왕의 親廟, 즉 성덕대왕과 경덕대왕을 五廟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혜공왕이 오묘제를 개정한 이유를 11년에 친정을 시작한 이후, 왕권의 강화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김지정의 난에서 알 수 있듯이 혜공왕의 친정과 오묘제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양상 세력의 동향과 연관이 있다.

김양상은 혜공왕 10년에 상대등이 되었고, 11년에 김은거, 염상, 정문의 반란을 진압했으며, 12년에 경덕왕 때 한화식으로 개정하였던 관직의 이름을 모두 옛 것으로 복구시켰다. 또한 13년에 왕에게 글을 올려 시국의 정치를 극론하였으며, 16년 4월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 하에 군사를 일으켰다.⁴⁸⁾ 이로 볼 때 혜공왕 11년에 일어난 일련의 반란은 김양상이 정치적으로

43) 이기백, 1974 앞의 책, pp.229~237 ; 김수태, 2011 앞의 논문, p.168.

44) 이기백, 1974 앞의 책, p. 247.

45) 이영호, 1989 앞의 논문 ; 2014 앞의 책 재수록, pp.133~134.

46) 신라사상 섭정을 거쳤던 진흥왕과 애장왕의 사례를 볼 때, 신라왕의 섭정은 18세가 되던 해에 끝이 나고 친정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추측하였다(이문기, 1999 앞의 논문, p.816).

47) 이문기, 1999 앞의 논문, pp.802~807 ; 채미하, 2008 앞의 책, p.171.

48) 『三國史記』 권9 신라본기9 혜공왕 13년, 16년.

부상하고 만월태후 섭정기의 정치세력 간의 권력의 균형이 깨짐에 따라 야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양상의 정치적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가 선덕왕으로 즉위한 이후의 오묘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선덕왕에 이어 원성왕으로 즉위한 김경신이 개정한 오묘제의 내용이다.

2월에 왕의 고조부 대아찬 법선을 현성대왕으로, 증조부 이찬 의관을 신영대왕으로, 할아버지 이찬 위문을 흥평대왕으로, 죽은 아버지 일길찬 효양을 명덕대왕으로 추봉하였다. (중략) 성덕대왕과 개성대왕의 두 사당을 헐고, 시조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 및 할아버지 흥평대왕과 아버지 명덕대왕으로써 오묘를 삼았다.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원성왕 원년)

위의 사료를 보면 선덕왕이 즉위한 이후, 신덕왕의 考와 父를 오묘에 모셔야 했는데, 考의 자리에 外祖인 성덕왕의 신위를 그대로 놔두고, 경덕왕의 신위 대신 선덕왕의 父인 개성대왕을 모셨음을 알 수 있다. 김양상의 모는 四炤夫人으로 성덕왕의 딸이다. 이에 선덕왕이 외조인 성덕대왕의 신위를 오묘에 모신 이유에 대해 즉위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무열왕계인 김주원 세력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⁴⁹⁾ 김양상은 중대의 적자계승원칙을 어기고 즉위한 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혜공왕은 김지정의 반란과 그 진압의 혼란 중에 시해되었다. 『삼국사기』에는 혜공왕이 난변, 즉 김지정의 반란군에 의해 시해되었다고 하였으나, 『삼국유사』에서는 혜공왕을 시해한 인물이 김양상과 김경신이라고 기록하였다. 그 직후에 즉위한 왕이 김양상, 즉 선덕왕인 것이다.

김양상이 왕으로 즉위하였으나, 오묘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중대의 연장선상으로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

49) 채미하, 2008 앞의 책, pp.198~199.

우리라 여겨진다. 이에 外祖인 성덕왕의 신위는 그대로 두고 親父인 개성대왕의 신위만을 경덕왕의 신위와 교체하였던 것이다. 이는 E-1)의 혜공왕대의 관호 복구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정치세력의 권력 강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덕왕대 개정되었던 관호를 복구하고, 오모제에서 경덕왕의 신위가 교체되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혜공왕대의 관호 복구와 오모제 개정의 목적이 혜공왕의 왕권 강화가 아니라 김양상과 그의 정치세력의 권한 강화, 나아가 왕권 탈취의 정치작업으로도 생각될 여지가 있다.

요컨대 만월태후는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계승되는 중대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만월태후가 섭정에서 물러난 이후의 관호 복구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들은 중대왕권의 지향, 직접적으로는 경덕왕대 정책의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월태후의 섭정기의 정치는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중대왕권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의 주요 정치세력인 김웅과 김양상 등과의 협의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세력 간의 균형이 깨짐에 따라 혜공왕 11년을 전후로 한 일련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 시기 김양상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이 주요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혜공왕의 친정체제는 혜공왕이 왕권을 장악하였다는 의미보다는 만월태후의 정치적 영향력이 혜공왕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⁵⁰⁾ 만월태후가 섭정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대신 김양상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혜공왕 11

50) 김수태는 만월태후의 섭정시기를 경덕왕대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하고, 혜공왕 12년의 복고정책은 경덕왕대의 부정이기도 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는 모후 섭정기의 부정이었으며, 이는 혜공왕 7년 이후 더욱 권력을 장악한 반전제주의 진골귀족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2011 앞의 논문, pp.161~168). 혜공왕 친정기의 복고정책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김양상세력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다만 복고정책의 목적은 만월태후의 섭정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경덕왕대에 대한 부정, 나아가 성덕왕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을 재정립하기 위한 김양상-김경신일파의 의도가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년 이후의 관호 복구, 오모제 개정 등의 정책은 김양상을 위시한 진골귀족세력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V. 맺음말

왕실여성의 위상은 왕실과 귀족세력 간의 역학관계 내에서 위치지어지고, 왕실여성의 칭호는 그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반영한다. 중대에는 왕실여성의 칭호로 ‘后’ 칭호가 수용되었다. 중대 왕실여성은 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왕의 배우자로서 ‘왕후’, 왕의 어머니로서 ‘태후’의 칭호로 규정되었다. 중대 왕실여성의 ‘后’ 칭호가 수용된 이유가 왕실여성의 위상, 나아가 중대왕실의 위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대 왕실여성의 칭호와 위상은 중대 왕권의 위상과 연동된 것이었다. 이는 왕실여성 내의 위상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대에 왕실여성의 칭호가 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왕후와 태후로 정해졌고, 그에 따라 왕의 배우자와 왕의 어머니로서의 위상도 자리매김 되었다.

만월태후는 왕모로서 어린 해공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였다. 해공왕이 즉위한 후에 나라 안에서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만월태후에게는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통치의 정당성과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다. 만월태후는 왕권을 유지하고 섭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왕모’의 지위를 강조하여야만 했다. 대내적으로는 ‘태후’의 위상을 자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당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왕대비’의 책봉을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만월태후는 섭정으로서의 지위와 명분을 당의 大妃 책봉을 통해 공인받았다. 이는 성덕왕대 왕후 책봉, 효성왕대 당의 왕비 책봉, 경덕왕대 태후 책봉으로 이어지는 왕실여성 위상의 정립 과정과 연관된 것이다. 신라 중대에 당의 후비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왕후’의 正妃로서

의 위상이 정립되었다. 중대의 ‘대왕-왕후’ 체계에서 왕의 배우자로서 왕후의 지위는 공식적인 것이지만, 왕의 어머니인 태후의 지위는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왕권이 강했을 때에는 공식적인 지위인 왕후의 위상이 높아졌고, 왕권이 약할 경우, 왕의 지배체제를 초월한 지위인 태후의 위상과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강해졌던 것이다.

만월태후는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는 비상시적 상황에 의해 태후로서 섭정을 할 수 있었다. 만월태후는 신라의 정치적 여건에 의해 당의 책봉호인 ‘대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통해 섭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월태후는 섭정기간 동안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했다. 그러기 위해 성덕왕-경덕왕-혜공왕으로 이어지는 왕통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만월태후는 섭정으로서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는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중대의 왕모의 위상과 역할은 제도적으로는 당의 후비제에 대한 理解가 심화되고, 정치적으로는 왕실과 귀족세력 간의 정치적 利害가 맞물려 정립되었다. 신라 중대에 ‘왕후’의 위상이 정립되었고, 이는 왕모인 ‘태후’의 위상 및 역할과 연동되었다. 중대의 왕실여성은 대왕의 배필인 ‘왕후’로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었고, 왕의 어머니인 ‘태후’로서 왕실의 정통성을 保持하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투고일 : 2017.02.05 심사개시일 : 2017.02.21 심사완료일 : 2017.03.06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通典』 『唐會要』 『全唐文』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김선주, 2011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 44

김수태, 1996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김영하,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박해현, 2003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신정훈,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이기백,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이영호, 2014 「신라 중대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이호영, 1997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株式會社

金慶浩, 1995 「漢代 皇太后權의 性格에 대한 再論」 『阜村 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김수태,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新羅史學報』 22

박해현, 1997 「惠恭王代 貴族勢力과 中代 王權」 『全南史學』 11

박해현, 1997 「신라 경덕왕대의 외척세력」 『韓國古代史研究』 11

박해현, 1993 「新羅 孝成王代 政治勢力의 推移 - 孝成王의 卽位過程을 중심으로」 『歷史學研究』 12

신정훈, 2001 「新羅 惠恭王代 政治的 推移와 天災地變의 性格」 『동서사학』 8

이기백, 1958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이문기, 1999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이영호, 1990 「신라 혜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

이영호, 1990 「신라 혜공왕 12년 관호복구의 의미」 『대구사학』 39

이영호, 2003 「新羅의 王權과 貴族社會 - 중대 국왕의 혼인 문제를 중심으로 -」 『新羅文

化』22

- 이영호, 2011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 이호영, 1974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 이현주, 2015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 이현주, 2015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 이현주, 2015 「신라 중대 신목왕후(神穆王后)의 혼인과 위상」 『여성과 역사』 22
- 전덕재, 1997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 -聖德王-惠恭王代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37
- 조범환, 2010 「神穆太后 -신라 중대 孝昭王代의 정치적 동향과 신목태후의 섭정-」 『서강인문논총』 29
- 조범환, 2011 「신라 중대 聖德王代의 정치적 동향과 왕비의 교체」 『新羅史學報』 22
- 조범환, 2011 「王妃의 교체를 통하여 본 孝成王代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연구』 154
- 조범환, 2014 「《삼국유사》 왕력편의 異種記事를 통해 본 中代 新羅의 정치구조 -신라 중대 景德王의 왕비 교체와 정치적 동향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30
- 조범환, 2014 「中代末 惠恭王의 婚姻을 통하여 본 政局의 변화」 『新羅文化』 43
- 채미하, 2000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韓國史研究』 108

Abstract

The title and status of The queen dowager in the middle Silla Dynasty

Lee, Hyun-ju

The Manwall is the queen dowager. The Manwall is the mother of Hyegong of the last king of the middle Silla Dynasty. The Manwall was a regent on behalf of her young son. In the country, the rebellion never ceased. For the Manwall, keeping the throne was a pressing need. For Manwall, it was important to assert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and the legitimacy of kingship from the forces that threatened the throne. The Manwall had to emphasize the status of 'the mother of the king' in order to maintain her royal power and fulfill her role as a regent. Domestically, she has been in the position of 'the queen dowager[太后]', and from outside, she received an exception from his party as a 'dowager[大妃]'.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titles of the mother of king of the middle Silla Dynasty who had to receive dowager[大妃]'s service from the Tang[唐] despite her being the queen dowager[太后]. The title of the mother of king of the middle Silla Dynasty was generally Madam[夫人] and the queen[王后]. It can be seen that the phase of the queen[王后] is higher than that of the queen dowager[太后] in the hierarchy of royal women. Because the queen[王后] is the wife of the great king[大王]. This is the result of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Institution of Queens and Concubines[后妃制] in Silla and thus establishing the status of Queen[王后] as the first queen[正妃].

The status of the queen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company, which resulted in the unofficial status of the queen dowager' status. The Manwall was able to regent because of the unusual situation that The king Hyegong was superseded at an early age. The Manwall was actively accepting the Tang[唐]'s contingent of the party according to the political conditions of Silla, and tried to establish its position as regent. She also had to insist on the legitimacy of rule during the regency period. In order to do so, she emphasized the legitimacy of King Sungdeok[聖德王] -

Kyungdeok[景德王] – Hyegong[惠恭王] were regent and played a political role to preserve the legitimacy of the royal family.

Key words : Institution of Queens and Concubines[后妃制], Queen dowager[太后], Dowager[大妃], Queen[王后], The king Hyegong[惠恭王], The Manwall[滿月太后]